

##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진짜 드라마가 온다!

### 새 월화 <귓속말>

박경수×이명우  
이보영×이상윤  
'최강 조합'



3월 27일(월) 밤 10시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이 첫 방송된다.

<귓속말>은 법률회사 '태백'을 배경으로 적에서 동지로, 그리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는 두 남녀가, 인생과 목숨을 건 사랑을 통해 법비(法匪)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이야기다. 이보영, 이상윤이 <내 딸 서영이> 이후 4년 만에 만나, 전작을 뛰어넘는 국민드라마를 써내려간다.

<귓속말>은 <추적자>, <황금의 제국>, <편지>에서 탄탄한 필력으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 박경수 작가가 2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라는 점, 박 작가와 <편지>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명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데 치중하던 박경수 작가가 처음으로 멜로를 전면내세운 것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이명우 감독은 "선이 굵고 거친, 어른들의 멜로를 선보일 것"이라며 박경수식 멜로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이보영이 맡은 신영주는 올곧은 기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런 아버지가 누명을 뒤집어쓰자, 신영주는 삶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

이상윤이 맡은 이동준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판사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 인생을 걸게 된다.

권율은 거대 로펌 태백의 선임변호사 강정일 역을 맡았다. 샤프한 머리와 스위트한 매너로 태백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그는 이동준의 출현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박세영은 태백의 오너 최일환의 딸로, 몸은 명품으로, 마음은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최수연 역을 맡았다.

태백의 오너이자 최수연의 아빠로 김갑수가 출연하며, 그와 친구 사이이자 라이벌 역으로 김홍파가 출연한다.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결은 주인공 라인 못잡은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신영주의 엄마 아빠로 김해숙, 강신일이, 이동준의 아버지와 새엄마로 김창완, 김서라가 출연하며, 이동준의 친모로 원미경이 출연한다. 그 외에도 문희경, 윤주희, 조성원, 김뢰하, 조달환, 이현진 등 쟁쟁한 조연들이 박경수 작가의 신작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보영이 <귓속말>로 지성이 열연한 <피고인>의 인기를 뛰어넘으며 부부가 나란히 2017년 SBS 연기대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은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은 <피고인> 후속으로 3월 27일(월) 밤 10시에 방송된다.

## TV 봄 개편 -예능 시각 변동 예고!



3월 26일(일) TV 부분 개편이 실시된다. <런닝맨>이 일요일 오후 5시대에 방송되고, 6시대에는 신개념 가요 예능 <판타스틱 듀오 2>가 방송된다. 2시와 4시에 나뉘어 방송되던 <뉴스브리핑>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통합 편성된다. 4월 14일(금)에는 2차 TV 개편이 실시된다. 신개념 어류 추적 버라이어티 <주먹쥐고 뱃고동>이 토요일 저녁에 신설되며, <미운 우리 새끼>가 일요일 밤 <K팝스타 6>가 종영된 자리로 이동한다. <미우새>가 떠난 자리는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돌아와 금요일 밤의 경쟁력을 유지한다.

### 일요일 저녁 경쟁력 강화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 2>

전 세계 한류 콘텐츠의 선두 주자 <런닝맨>이 3월 26일부터 일요일 오후 4시 50분으로 전진 배치된다. 10대~40대 골수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런닝맨>은 동 시간대 방송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복면가왕> 등 중장년층 취향의 경쟁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시청층으로 경쟁한다는 전략이다.

금의환향하는 <판타스틱 듀오 2>는 일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방송된다. 시즌 2는 두 명의 스타 싱어가 등장해 각각의 판듀를 선정하고, 1:1로 대결을 해나가는 좀 더 긴박한 포맷으로 발전해, 시즌 1의 화제성과 흡입력을 이어 나간다.



### 토 저녁 6시 20분~8시 <주먹쥐고 뱃고동> 신설

지난 설 특집 파일럿 중 전 방송사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주먹쥐고 뱃고동>이 4월 15일부터 토요일 저녁에 정규 편성된다. <주먹쥐고 뱃고동>은 200년 전 정약전 선생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 백과사전 '자산어보'를 바탕으로 한다. 파일럿 멤버였던 김병만, 육종완, 이상민, 육성재를 비롯해 새롭게 합류한 김영광, 경수진 등이 우리나라 바다와 섬 곳곳의 해양 생태계를 새롭게 기록하며 현대판 '신 자산어보'를 만들어간다. 신개념 어류 추적 버라이어티 <주먹쥐고 뱃고동>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하면서도 유익한 예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요일 저녁 6시 20분 ~ 8시 방송



### <미운 우리 새끼> 일 밤 9시 15분~11시 방송

지난 가을, SBS는 '토요일 밤 드라마 연속 편성/일요일 밤 대형 예능존 <K팝스타 6> 편성'의 승부수를 띄워 성공을 거뒀다. <K팝스타 6>의 후속예 관심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6일(일)부터 그 자리는 <미운 우리 새끼>가 차지한다. 현재 금요일 심야에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는 김건모, 박수홍, 토니안, 허지웅 등 연예인 아들들의 싱글 라이프와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입담으로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파일럿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재방까지도 동 시간대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미운 우리 새끼>의 이동으로 SBS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으며 일요일 밤의 주도권을 계속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디오 봄 개편 -한 단계 더 도약!



SBS 라디오가 3월 20일(월) 봄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파워FM과 러브FM 간 프로그램 이동을 통해 양 채널의 장점을 높이고, 진행자 교체 및 기존 프로그램 포맷 혁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이 러브FM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4시 5분에 방송되고, 그 자리의 DJ 붐은 파워FM으로 이동해 <DJ 붐의 붐붐파워>를 진행한다. 또 김흥국이 개그우먼 안선영과 함께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러브FM <아싸! 라디오>를 진행한다. 파워FM <장예원의 오늘 같은 밤>은 폐지되고 NCT의 자니와 재현이 진행하는 <NCT의 Night Night!>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정치시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 정치 시사 쇼'를 표방한 <정봉주의 정치쇼>가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러브FM을 통해 순항 중이다.

### <김창렬의 올드스쿨>, 고정 팬 끌고 러브FM으로

SBS의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창렬의 올드스쿨>이 친정인 러브FM으로 돌아온다.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2006년 11월 러브FM서 첫 방송된 뒤 이듬해 개편으로 파워FM으로 이동, 매일 오후 4시에 방송됐다. DJ 김창렬의 맛깔 나는 진행과 1990~2000년대에 사랑받던 향수 짙은 음악은 충성도 높은 팬들을 양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라디오센터 관계자는 “<올드스쿨>을 따라 러브FM으로 이동하는 팬들이 러브FM의 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열을 재정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후 4시 5분 방송



### 김흥국X안선영의 케미, 러브FM <아싸! 라디오>

활기와 흥이 넘치는 <아싸! 라디오>가 청취자의 나른한 오후를 깨운다. 러브FM이 오후 2시 5분 새롭게 선보이는 <아싸! 라디오>는 타고난 예능인 김흥국과 개그우먼 안선영이 호흡을 맞춘다. 네티즌들에게 '예능 치트키', '흥귀신' 등 애정 어린 별칭으로 불리는 김흥국은 라디오 진행자로서 특급 에이스다. 안선영은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걸크러시의 원조다. 김흥국의 어디로 될지 모르는 분방함을 안선영이 아무지게 잡아주는 조합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아싸! 라디오>는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된다.



### 파워FM, 밤 11시 <NCT의 Night Night!> 신설

NCT의 멤버, 재현과 자니가 매일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파워FM <NCT의 Night Night!>를 진행한다. 재현과 자니는 지난달 <러브게임>의 일일 DJ로 출연하여, 부상으로 인한 진행자 박소현의 공백을 훌륭히 메웠다. 두 사람의 가능성을 눈여겨 본 제작진은 이들을 진행자로 전격 발탁해, 라디오에서 멀어진 젊은 층을 공략하기로 했다. <NCT의 Night Night!>는 SBS 인터넷라디오/모바일 앱인 '고릴라' 이외에도 브이앱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 세계 청취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한편 <NCT의 Night Night!>이 1시간으로 편성되면서, <존박의 뮤직하이>는 한 시간 앞당겨진 자정부터 방송된다.



## 3월 말부터 벅스의 '팟티' 앱으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어

SBS 라디오가 벅스와 손잡고 오디오 콘텐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SBS와 (주)벅스는 3월 2일(목)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가 보유한 오디오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오디오 콘텐츠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팟티(POD TY)' 앱에서 SBS 라디오 콘텐츠를 청취할 수 있다. <두시탈출 컬투쇼>, <박선영의 씨네타운>, <박소현의 러브게임>, <이국주의 영스트리트>와 같은 SBS의 인기 라디오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정지영의 스위트뮤직박스> 등의 중영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정태익 라디오센터장은 "오디오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벅스와 SBS 라디오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며, "'팟티'에 SBS 라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벅스 양주일 대표는 "앞선 기획력과 호응 높은 콘텐츠로 라디오 시장을 선도해 온 SBS 라디오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 오디오 시장을 무대로 다양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익 라디오센터장, 양주일 (주)벅스 대표

한편, (주)벅스는 종합 음악 플랫폼으로 도약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디오 콘텐츠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팟캐스트 앱 '팟티'를 선보이는 등 그동안의 음악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 콘텐츠와 플랫폼을 서비스 중이다.

부서  
탐방



SBS가 자신 있게  
내놓은 자식들...

젊은 감각 '스브스뉴스'

뉴미디어국 뉴미디어제작2부

뉴미디어제작2부가 하는 일은?

스브스뉴스를 만든다. 뉴스로 소개된 사연 깊은 인물들을 직접 후원할 수 있는 '나도펀딩'도 같이 하고 있다.

스브스뉴스는 어떻게 시작됐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뉴미디어부에서 처음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이를 더 발전시킨 게 스브스뉴스다. '스브스'는 잘 알다시피 네티즌들이 SBS를 부르던 신조어였다. 이를 과감히 이름으로 도입하고, 대학생 인턴제를 운영하여 젊고 신선한 감각을 살렸다. 방향성은 '20대 타깃', 'B급 정서'로 잡았는데, 경쟁자들이 많아서 살짝 B+가 됐다.

슬로건이 'SBS가 자신 있게 내놓은 자식들'이다. 자랑 좀 해 달라.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내놓은 자식들'이라고 겸손하게 갈까 하다가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가자고 질렀다. 지금은 우리와 유사한 뉴스 서비스가 많이 생겼고, 꽤 잘하는 곳도 많아졌지만,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 면에서나 인기 면에서 업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 경계선을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정체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은 숙명이다. 매번 새로운 주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요즘은 다른 장르와 콜라보에 공들이고 있다. 뉴스와 예능, 뉴스와 드라마, 뉴스와 캠페인 등등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된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최근에 시도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고시원 자식들'이 그런 예다. '뉴스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례다.



화제를 모았던 아이템 몇 개만 꼽아 달라.

<세상에 이런 일이> 팀과의 콜라보로 네이버에 소개한 신경섬유종 환자 심현씨 씨 아이템은 트래픽 폭주로 사상 최초(?)로 네이버 서버를 다운시켜 버렸다. 순식간에 '나도펀딩'으로 10억 원이 모여 뒷수습에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저소득층 소녀들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고 있다는 기사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것도 스브스뉴스다. 이것 역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공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아이템들이 화제를 모았다. 1차 촛불집회는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큰 반향을 얻었고, 2차 촛불집회는 주말에 광화문 교보빌딩 미디어크리에이트 사무실을 빌려서 휴대전화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도달이 6백만을 넘으면서 크게 화제가 됐다.

온라인에서는 스브스뉴스가 SBS 뉴스를 통칭한다.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칭찬과 응원이 이어지면서 SBS 뉴스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브스뉴스로 SBS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젊은 층들이 TV에서도 SBS 뉴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부서의 일과는?

오전 내내 회의를 한다. 매번 회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정하

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꽤 길다. 오후에는 제작을 한다. 일반 B급 콘텐츠와 다른 점이 신뢰라고 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으려고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 또 새로운 팩트 하나라도 더 취재하려고 노력한다.

부서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기자 5명을 포함해 마케팅 담당 2명, 영상취재&편집, 에디터, 디자이너, 작가, 웹툰 작가 등의 프리랜서와 대학생 인턴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으로, 아마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젊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다.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이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이다. 호칭도 바꿨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인턴부터 50대 부장까지 직위를 싹 빼고 서로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특이한 부서일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단단해지고 몸집을 키울 것이다. 수익구조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자신 있게 내놓은 자식들이 어엿한 성인으로 훌쩍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

인터뷰  
이 사람

“영재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영재발굴단> 황성준 PD

2015년 설 특집 파일럿으로 시작해 정규 편성된 <영재발굴단>이 오는 3월 22일(수) 100회를 맞는다. <영재발굴단>은 단순히 머리 좋은 ‘수재’가 아닌, 재주가 뛰어난 ‘영재’를 다룬다. 또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자신만의 특별함과 잠재력을 지닌 영재를 다룬다.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잡고, 때로는 감동까지 주는 <영재발굴단>의 황성준 PD를 만나봤다.

### 100회를 맞는 소감은?

4개월 동안 다른 팀에 가 있었던 것 빼고 파일럿부터 지금까지 만 2년 가까이 <영재발굴단>에 있었다. 초반에는 100회는커녕 한 주 한 주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100회까지 온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 80여 일된 딸아이의 아버지기도 한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궁금하다.

2부작 ‘아빠의 비밀’ (2/1, 2/8 방송) 편을 제작하면서 느낀 바가 많다. 육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빠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고 한다(그런데 우리 집도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 지능지수보다는 ‘그릿( grit: 투지)’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믿는다. 실패해도 기본 좋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 영재 이야기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양육 태도 중 하나이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의 ‘재능’에만 집중해 시청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영재발굴단>은 우리 아이들을 어

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그 주인공으로 ‘영재’를 선택했을 뿐이다.

### 영재가 우리나라의 인재로 성장한 모습까지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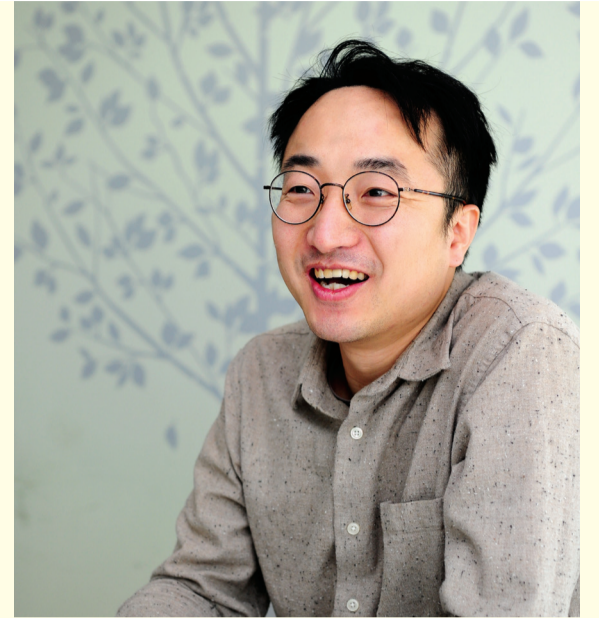
400회나 500회 특집을 하는 날이 온다면 훌륭한 인재로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그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물론 지금도 훌륭한 성과를 낸 아이들이 있다. 예고에 수석 합격한 아이도 있고 클래식 음반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아이도 있다. 예술 쪽은 이른 나이에도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요즘은 <K 팝스타 6> TOP 8에 진출한 ‘보이프렌드’의 박현진 군을 주목하고 있다. 제작년 겨울 우리 프로그램(36회)에 출연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놀랍고 자랑스럽다. 당시 멘토로 출연한 래퍼 산이(SANE)가 방송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진이와 만났다고 하는데, 고마운 일이다.

### 최근 들어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넘보고 있다.

아이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이 주요했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한 노력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느꼈던 것 같다.

### 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때 뿌듯한가?

아이 키우며 고민이 많은 부모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이 많다는 반응을 접할 때 뿌듯하다. 패럴인 성대헌 씨가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알아봐서 밖을 못나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도 뿌듯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지 않았던 출연자가 방송 이후 밝아진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정국이 정국이다 보니 ‘슐레란드’라는 자신만의 나라를 세운 세계사 영재 박준태 군이 생각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던 준태가 자신만의 이상 국가 슐레란드를 만들고 헌법 1조에 이렇게 썼다. ‘슐레란드는 민주공화국이다.’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어른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만드는데, 최근에 준태가 그랬던 것 같다.

### 앞으로 계획은?

<영재발굴단>은 기본적으로 VCR 프로그램이지만, 장를 넘나드는 특집 프로그램도 다수 제작해 왔다. 당장 100회 특집으로 깜짝 놀랄만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4월에는 ‘아빠의 비밀’ 편에 이은 또 다른 ‘비밀’ 시리즈가 계획되어 있다. 기대해 달라.

### 끝으로 한마디

밖에서 고생하는 야외 연출 PD들, 영재 찾느라 밤낮없이 일하는 작가들, 그리고 <영재발굴단>을 진심으로 아끼는 MC 컬투와 김지선, 성대헌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그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런닝맨> 한류 팬이 뽑은 최고의 예능



<런닝맨>이 글로벌 한류 팬이 선정한 2016년을 빛낸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등극했다.

영어권 최대 한류 뉴스 사이트 슌피(www.soompi.com)는 글로벌 한류 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슌피 어워즈’ 투표에서 <런닝맨>이 ‘최우수 예능 프로그램(Best Variety Show)’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슌피 어워즈’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내셔널 K-POP & K-Drama 시상식으로, 이번에는 139개국 9,626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닝맨>은 <1박2일>, <무한도전>, <복면가왕>,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경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예능 프로그램’에 등극했다.

## 시민사회부 법조팀 ‘이달의 방송기자상’

보도국 시민사회부 법조팀 이한석, 임찬중, 윤나라, 김혜민, 민경호 기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청구서 단독 입수 및 최순실 게이트 연속보도’로 방송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100회 이달(1월)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법조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를 특검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긴밀한 관계로 정의한 것과 뇌물죄·3자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한 것,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원과 지지를 부탁한 내용 등을 단독 보도했다. 시상식은 2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김혜민, 윤나라, 이한석 기자



## 광고운영팀 김혜리 매니저 안식년



광고운영팀 김혜리 매니저가 정년을 1년 앞두고 4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

김혜리 매니저는 1991년 3월 광고부에 입사하여 AM 개국(1991년 3월)과 TV 개국(1991년 12월) 그리고 FM 개국(1996년 6월)의 현장에서 광고 송출

을 담당한 SBS 광고의 산증인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교육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라디오광고와 관련해서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영업사원까지 김혜리 매니저에게 배워야 광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따사로운 봄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게 되는 김혜리 매니저에게 그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함께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